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5089.14	↓ 코스닥	1080.77
	(-74.43)		(-27.64)
↑ 금리 (국고채 5년)	3.233	↓ 환율 (원·달러)	1463.00
	(+0.029)		(-6.00)



삼성, 설 이후 HBM4 세계 첫 양산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 HBM4 탑재
내달 GTC2026서 공개
SK와 주도권 경쟁 가속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출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동시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

사의 HBM4 주도권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양산 출하 시기를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셋째 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품질 테스트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통과하며 구매주문(PO)을 받았고 ‘베라 루빈’ 출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일정을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고객사 완제품 모듈 테스트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4

샘플 물량도 이번 PO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엔비디아는 내달 열리는 자사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삼성전자 HBM4가 탑재된 베라 루빈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차세대 HBM4가 양산 출하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또한 삼성전자 HBM4는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때부터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을 능가하는 최고 성능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이번 HBM4에 1c(10나노급 6

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앞서 글로벌 HBM 시장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가 이미 HBM4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정과의 시너지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 또한 HBM4에 탑재될 10나노급 5세대 D램 양산에 속도를 내며 물량 공급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5일(현지시간) 열린 갈라 디너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뒷줄 오른쪽 네번째)이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및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앞줄 오른쪽 일곱번째), JD 밴스 미국 부통령(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 함께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기업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통령실 홈페이지

밀라노 간 이재용, 2년 만에 ‘스포츠 외교’

IOC 주관 갈라 디너 참석
동계올림픽 참가 3800명
갤럭시Z폴립7 에디션 지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행사에 참석해 2년 만에 스포츠 외교를 재개했다.

이재용 회장은 6일(현지시간) 개막한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 글로벌 기업가들과 교류하며 스포츠 외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재용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5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갈라 디너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TOP)인 삼성전자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뿐 아니라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타미姆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카롤 나브로키 폴란드 대통령, 토마스 슈요크 헝가리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가로는 리동성 TCL 회장, 올리버 바테 알리안츠 회장, 레이널드 애슐리만 오메가 CEO, 미셸 두케리스 엔하이저 부시 인베브 회장, 가오페이 명유 회장,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사일리시 예유리 카르 프록터앤갬벨 CEO, 라이언 맥이너니 비자 CEO, 조셉 우쿠조글루 딜로이트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회장 등이 참

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IOC 갈라 디너는 단순한 사고 모임을 넘어 글로벌 정세와 비즈니스 현안이 논의되는 물밑 외교의 장”이라며 “이재용 회장의 참석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은 물론 한국 스포츠 외교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도 현지를 찾아 스포츠 외교를 이끈 바 있다. 삼성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부터 대를 이어 변함없이 올림픽을 후원해 왔으며 2028년 미국 LA 올림픽까지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이 올림픽 후원을 이어가는 것은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을 계승해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사의 올림픽 후원은 단순한 로고 노출을 넘어, 스포츠의 도전 정신과 삼성의 혁신 이미지를 결합한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이번 동계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손잡고 갤럭시워치가 기록한 선수들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약 90개국 3800여명의 선수들에게 ‘갤럭시Z폴립7’을 지급했다.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카를 촬영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이어진다.

/양성운 기자 ysw@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빗썸 “오지급 손실 전액 보상”

2000원→2000BTC로 지급
약 1900억 규모 오지급 사고
손실액 10억+10% 추가보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 규모를 파악해 전면 보상에 나섰다. 빗썸은 고객 손실액이 약 10억원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시세 대비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사고 시간대(오후 7시30~45분)에 비트코인을 저가매도한 고객에 대해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참여 보상을 지급하는 중에 1인당 2000원 지급이 1인당 2000BTC(약 19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오지급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해당 계정에 대해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 이후 회수에 나

섰으나, 일부 회원이 해당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시장 내에서 일시적인 가격 급락이 발생했다.

빗썸이 지난 7일 내놓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약 62만BTC다. 전체 오지급 분량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는 회수됐으며,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중 93%는 회수됐다. 사고 발생 시기 매도·매수된 분량 가운데 외부 전송된 분량은 없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중인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홈페이지에는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결제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차단 시스템 강화 등 향후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공지했다.

또한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시장가 급락이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발생한 ‘팩닉셀’로 피해를 입은 고객 손해분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 ▲여당 ‘김성태 변호인’ 특검 후보 추천에 이 대통령도 불쾌감 표한 것으로 알려져
- ▲이준석 “정부여당 정책대로면李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불가”

/사진 뉴시스

- ▲민주, 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엄중 책임 묻어야”
- ▲2월 하순北 9차 당대회…김정은 메시지 주목

- ▲靑 “대북 인도 지원 일관되게 이뤄져야…北 화답하길 기대”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치 중…선거 앞두고 한두달짜리”